

돈줄 막히기 전에 ... 대출 수요 '폭증'

9월부터 은행·2금융권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로 제한
지역 3대 보증기관, 일주일새 보증신청 금액 45.6% 늘어

"집값은 오르고 대출도 막힌다는데 연말 이사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대출 금리가 곧 오를 것 같은데 주식을 팔지 대출을 갚을지 고민입니다."

사실상 모든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대출 축소에 나서면서 자금줄이 막히기 전에 돈을 빌리려는 지역민 자금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3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신규 신용대출 건수는 2654건으로, 직전 10일(10-19일) 2222건보다 19.4%(432건) 증가했다. 8월 첫 주(1-9일 1464건)에 비해서는 81.3%(1190건) 급증한 수치다.

'마이너스 통장'이라 불리는 마이너스 대출 신규 건수는 160건으로, 직전 주(97건)에 비해 64.9%(63건)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7%를 넘긴 NH농협은행은 앞서 이달 19일 금융 당국 요구를 수용해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말 광주·전남 가계대출 잔액이 57조원에 육박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 당국은 강도 높은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는 당장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원 이내'로 줄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올리면서 주요 은행 대출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자의 쉼밭도 복잡해졌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형식으로 금리를 올려온 시중은행들은 10월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2%대출'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내에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마음이 급해졌다.

광주신용보증재단·전남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호남영업본부 등 지역 3대 보증기관에 지난 일주일 동안(19-27일 영업일 7일) 들어온 신규 보증신청 금액은 497억5000만원으로, 직전 주(9-18일) 314억8000만원보다 45.6%(155억 7000만원) 급증했다. 1건당 평균 보증신청 금액

은 4300만원(788건)에서 5800만원(853건)으로, 34.5%(1500만원) 늘었다.

금융권 전반으로 퍼진 '3중 대출 절벽' (전세자금·신용·주택담보대출)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고민을 털어놓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주택자금대출 잔금을 치르거나 부동산 거래, 결혼 등 목돈 들어갈 일을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불안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관계자는 "은행 지점당 하루 2-3건 가량 담보 대출 중단에 대해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대출을 중단한 24일 기준으로 광주 27개 지점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창구 혼란이나 이른바 패닉(공황) 대출과 같은 특이 동향은 없었지만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백신 3차접종 늦지 않게 시작할 것"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스터샷(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접종을 늦지 않게 시작할 것"이라며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

군들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계획으로 전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 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갈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해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며 주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대다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된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대책이나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탁구 금·은·동 싹쓸이 ... 시상대 태극기 물결

도쿄 패럴림픽 남자 개인단식
주영대·김현욱·남기원 '쾌거'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이 도쿄 패럴림픽 남자 개인단식에서 금·은·동메달을 싹쓸이 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영대(48·경남장애인체육회)와 김현욱(26·울산장애인체육회), 남기원(55·광주시청)이 남자 개인 단식(스포츠등급 TT1)에서 각각 금·은·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관련 화보 11면·기사 22면】

대한민국이 패럴림픽 장애인탁구 한 등급에서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영대는 이번 대회 대한민국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2016년 리우 대회 탁구 은메달리스트인 주영대는 5년 만에 금메달의 꿈을 이뤘다.

주영대는 30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 탁구 단식(TT1) 결승에서 역시 태극마크를 단 김현욱을 세트스코어 3-1(11-8 13-11 2-11 12-10)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을 향한 승부는 치열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1세트에서 주영대가 8-4로 앞서며 기선을 제압했지만 '막내'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김현욱은 잇달아 서브 포인트를 때내며 9-8까지 따라붙었다.

그러자 주영대는 날 선 코스와 포핸드 드라이브로 내리 2점을 때내며 11-8로 첫 세트를 따냈다. 노련미를 뽐낸 주영대는 2세트 접전 끝에 13-11로 세트를 거머쥐었다. 3세트에서는 김현욱이 적극적인 공격과 로빙 플레이를 앞세워 11-2로 반격에 성공했다.



30일 오전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 탁구 개인전(스포츠등급 TT1) 시상식이 끝난 뒤 금메달을 차지한 주영대(가운데), 은메달 김현욱(왼쪽), 동메달 남기원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4세트도 대접전이었다. 6-6, 7-7, 8-8, 9-9로 팽팽히 맞서다 김현욱이 매치 포인트를 먼저 잡았지만, 주영대의 공격이 성공하며 또다시 듀스가 시작됐다. 결국 웃은 건 세계랭킹 1위 주영대였다. 주영대는 12-10으로 승리하며 세계랭킹 5위

김현욱을 누르고 금메달을 손에 쥐었다.

김영건(37·광주시청·세계랭킹 2위)은 다섯 번째 출전한 도쿄패럴림픽에서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김영건은 같은 날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

린 탁구 남자단식(스포츠등급 TT4) 결승에서 알둘라 외즈워르크(세계랭킹 1위)에게 세트스코어 1-3(11-9, 6-11, 7-11, 10-12)으로 역전패, 은메달을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못믿을 전자발찌 ... 지역민 불안 가중 ▶6면

크로스가 결승골로 ... 활짝 웃은 손흥민 ▶19면



크로스가 결승골로 ... 활짝 웃은 손흥민 ▶19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배우 손담비가 선택한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메타그린 골드

메타그린 골드 원포인트

- ☑ 고지방·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
- ☑ 항산화와 뼈 건강까지 관리해 부족하기 쉬운 대사 영양 케어
- ☑ 오셀록 농장의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식사 후엔 메타그린 골드를 꼭 챙겨요”

바이탈뷰티

제품 상담 | 080-023-5454
구매 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